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7월 20일(금) ... (음력 6월 8일) ... Пятница 20 июля 2018 г. № 28(11679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지난 17일(화) 사할린한인학생 60명이 <2018 재외동포 학생 초청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한국으로 떠났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관련 기사 3 면에 게재)

(이에식기자 촬영)

### 유즈노사할린스크 올해예산 10억 루블리로 증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예산비중이 증가되었다. 제 62회 경제예산 위원회 회의에서 시두마 의원들이 예산 증가를 두고 논의했다. 시예산은 10억 7610만 3000루블리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 금액은 주의 보조금과 지역소득의 증가로 산출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 재무부 국장인 율리야 크바스니코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업시행에 4억8500만 루블리가 배당되었다. 시 자체 세입으로 증가한 수익은 5억1400만 루블리이고 개인소득세 징수로 9200만 루블리가 추가로 들어왔다. 한편 납세제도도 근로소

득자의 납세가 1억6100루블 들어왔다. 따라서 2018년 도시 총수입은 230억4054만7900루블이지만 예산의 적자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 들어온 수입은 도로보수(2억7200만 루블리), 운송업체 보상 비용(2억9200만 루블리), 신학기 학교 준비 보조금(9900만 루블리)로 지급할 예정이다. 주 중심 예산지출은 235억 1773만4800루블리로 책정되었다. 하반기 추가 수익과 세입 배당으로 올해 도시 예산 개정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관측이 되고 있다.

### 주건설부, 투자대상 프로그램 실시에 83억 루블리 지급받아

웨라 웨르비나 수상이 주재한 사할린주정부 회의에서 주내 건설문제가 심의되었다. 타치아나 스타첸코 주건설부 장관 대행은 가장 많은 투자금(29억 루블리)은 교육시설 건설에 지급한다고 보고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스미르니흐, 노글리키에서 새 학교들을 건설하고 티롭스코에 구역, 키롭스코에 촌에는 학교와 유치원을 건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예산에서는 돌린스크 중학교 건설과 포로나이스크 제7중학교의 내진작업에 지급할 계획이다. 거의 각 구역에서 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양질의 주택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대상 프로그램으로 28억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스타첸코 장관 대행에 따르면 노후주택으로부터 주민 이주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초부터 지방자치체들에서 부지조성에 따른 작업 시행으로 서류상 절차가 이뤄지고, 지방자치체와 계약체결을 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 단신

#### 제22회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 국제학술대회 9월 25-27일 개최

제22회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국제학술대회가 올 9월 25-27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톨리차>비즈니스센터의 콩그레스홀에서 개최된다고 전해졌다.

학술대회의 세션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석유가스 분야 개발 전략에 대해 이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발표하고, 미래 국제 가스시장을 주제로 패널토론, 사할린 및 극동 석유가스기획의 단독 보도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할린 주지사가 주재하는 만찬 및 간담회와 석유가스 기획 조종가들과 1대1 만남, 주제별 좌담회가 구성된다. 사할린 측에서는 학술대회 준비로 400만 루블리를 지급할 예정이다.

#### <남부 쿠릴은 안전구역>청년포럼 개최

지난 16일(월) 쿠나쉬르섬에서 <남부 쿠릴은 안전구역>청년포럼이 열렸다. 이에 16세부터 35세까지의 학생, 대학생, 여러 기관 및 기업들의 청년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포럼의 목적은 청년의 자아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청년 조직단체 구성을 돕는 데 있다. 흥미롭고 유익한 만남, 효율적 활동, 추억과 새로운 친구와 만남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1주일간 학술대회는 <나의 작은 고향>, <주변 환경보호에서의 자연보호구역의 역할>, <애국심 교육>과 <생태보호 진출부대>라는 주제로 5개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포럼은 7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증서와 기념품이 주어진다.

#### 연방예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현대화에 지급

지난 17일 모스크바에서 극동지역과 바이칼 지역에서 투자기획 시행문제로 러시아 정부 부총리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연방 대통령극동연방구 전권대표가 주재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 결과 아무르주 블라고웨센스크 아무르강 제방 재건축과 방파제 건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현대화를 위해 연방예산을 지급하기로 했다.

#### 하계 <에브리카>특목학교 열려

지난 17일 토마리시에서 재능학생들을 위한 하계 <에브리카(유레카)> 특목(특정과목)학교가 열렸다. 이는 주내 12개 구역 학교에서 공부하는 8-11학년생 중 65명이 참가한다. 수학-물리학, 생물학과 화학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노워시 비르스크국립대와 사할린국립대 교사들의 수업을 3주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여름 특목학교는 올해 29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 아니와 어로수역에 연어송어잡이 시작

아니와 어로수역에서 연어송어잡이가 시작되었다.

아니와 구역 측이 확인한 바로는 21개 수산업체들이 연송어 어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수산업 산하 사할린-쿠릴 지역관리국에 어업 종사자의 신청서에 맞추어 예상하는 바로는 산업적 목적으로 송어잡이 어획은 1만5960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새고려신문

### 2018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김 이리나 유리에브나**와는 필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올해 한국을 다녀왔을 때 그녀가 러시아아카데미 안산 어학원에서 상담교사로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사 **배순신** 기자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이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 한국에 가시게 되셨는지요?**

- 러시아 한인 동포들은 역사적으로 고국에서 멀리 태어나고 살고 있었습니디. 전에는 조국으로 갈 기회조차 없었죠. 항상 가고 싶어했지만 현재는 세월도 바뀌고 조국에 가볼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저도 이 기회를 안 놓치려고 했죠. 한국에는 제 언니가 계시고 남편 쪽으로는 시누이와 시아주버님이 영주귀국하셨고 조카들도 이민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다들 '여기 와서 살아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남편과 함께 한번 모국방에서 살아볼까?'하는 결심을 했죠.

- **한국은 처음이세요?**

- 아니요. 대한적십자사 모국방문프로그램으로 부모님과 한국을 다녀왔었고 남편과 함께 부산여행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작년 8월에 와서 인천에서 거의 1년째 살고 있죠.

제가 선조들의 나라에서 사는 게 무척 좋습니다. 정말 집에 온 기분이라 할까요. 저랑 비슷한 사람 보고 친근함, 존경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감동적인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한국은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한 배려가 크다고 봅니다. 교통이든, 매점이든, 교육기관이든, 문화센터에서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지원 센터도 많고 무상 탐방연수프로그램도 많아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 **살기 어렵신지요?**

- 저는 아직까지 제가 사는 인천과 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도시가 크고 국제공항이 있고 그리고 인천에는 사할린영주귀국자들이 사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젊은 러시아 동포, 그리고 극동지역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 고려인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인천에는 러시아 동네 '4단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러시아말도 들을 수 있고 러시아 식품도 살 수 있고 <차이하나>에서는 샴슬리크와 보르쉬도 먹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생각 나면 연수전철역, '4단지'를 찾아가면 되십니다.

- **한국에서도 상담교사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다행히 제 전공을 따라 상담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아카데미 안산 어학원, <고려인문화복지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포들에게 심리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동포 가족들이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 **한국에 온 동포들은 주로 어떤 문제가 있든가요?**

- 우리 동포들은 문제

## “저는 한국에서 살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한국에서 상담교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 이리나와의 인터뷰



1966년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구역 오레호위촌에서 태어났음.  
**학력:** 1988년 유즈노사할린스크국립 사범대학 (초등교육교사 전공) 졸업, 2002년 노위시비르스크 교육자료전문교육원 (심리학, 상담교사)  
**경력:** 1988-2002년- 유즈노사할린스크 노위알렉산드롭스크 제1, 제2중학교, 초등반 교사.  
 2000년-노위시비르스크로 이주.  
 2002-2017년 - 노위시비르스크 제50일반중학교, 상담교사. 2017년 8월부터 한국에 거주.  
 기혼, 슬하에 1남1녀가 있음.

가 많아요. 준비를 하고 정착하는 어른들도 다른 나라의 생활에 적응하는 게 어려운데 가족과 함께 온 자녀들 정착의 경우엔 더욱더 어렵고 힘들죠. 아이들은 언어도 모르고 일하느라 제대로 언어를 배울 시간도 없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전문직 일을 했어도 한국에서는 막노동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심리적인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영 다른 정신, 생활방식, 전통, 풍습 등...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포아이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는 데다 교육 프로그램을 완수해야 하고, 학부모들은 일하느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대로 교육과 교재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러시아 동포들에게 심리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동포 가족들이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 **한국에 온 동포들은 주로 어떤 문제가 있든가요?**

- 우리 동포들은 문제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건강한 삶을 잃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리나 선생님은 한국에 빨리 적응하셨는지요?**

- 네, 저는 빨리 적응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러시아에 있을 때 선조들의 나라 전통,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배우고 부모님들이 하시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 음악도 들었습니다. 이것 모두가 보다 더 빨리 한국 생활을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죠. 목표와 준비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착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행복감이었죠. 러시아에서 보지 못한 새롭고 신기한 경험도 해보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고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어려움과 일상이 닥쳐오고, 언어를 모르면 좋은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실망을 느끼고 '제가 왜 여기 왔다? 여기에서 뭘 하려고 이려고 있나? 러시아에서는 모든 걸 가지고 있

었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나?'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전공에 따른 일을 찾지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잘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걸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첫째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한국어 배운 뒤입니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제 목표는 1년 안에 어릴 적에 쓰던 우리말을 다시 말하고, 일상에서 쓰는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말을 배워야 한다는 데 있었어요. 이 목표를 달성했어요. 1급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 급으로 올라갔죠.

- **한국에서 선생님의 하루를 얘기하자면요?**

- 저의 하루는 평균 대학생 또는 학생의 하루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1주일에 6번 학교에 가요. 1주일에 3번은 교회에서, 3번은 외국인 센터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간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한국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산책도 많이 합니다.

-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계십니까?**

- 현재 우리 가족도 이산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국에 있고 대학을 졸업한

딸과 아들은 혼자 살 준비가 돼 있죠. 이들은 아직 한국에서 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딸은 한국에 와본 적이 있어 좋아했고, 아들은 조상들의 나라를 찾아올 기회가 생기겠죠.

- **자신의 미래가 한국과 관련 돼 있을까요?**

- 우리 미래는 꼭 우리 자신과 희망에 달려있지는 않아요. 지금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살기가 좋고 전문가로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한국과 관련 기획과 소망은 많지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잖아요.

- **거의 20년 전에 사할린을 떠나셨는데 돌아오고 싶지는 않았는지요?**

- 사할린은 제 고향입니다. 항상 가고 싶죠. 사할린 주민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분들은 어디에서 살든 끝까지 사할린사람들입니다. 노위시비르스크든, 한국이든 저는 항상 바닷가를 그리워합니다. 사할린의 바람, 풍설, 눈더미, 커다란 우영 등도 그리웁니다. 사할린에서 사는 러시아인들과 한인동포들은 사할린 사람이고, 사할린 한식도 러시아인들이 즐기는 식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 기능올림픽 챔피언대회 준비 보도

8월 8일-12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진행될 '청년 전문가들'러시아 기능올림픽 챔피언대회 (WorldSkills Russia)가 활발히 준비되고 있다. 현재 대회 진행을 위한 행사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대회 진행본부는 참가신청서를 정돈하고 있다. 행사 기간에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도 방문객 3500여명이 사할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러시아 기능올림픽대회 국가챔피언 결선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나탈리야 바치우가 전했다.

바치우는 "우리는 대회를 맞이해 도시를 정비하고 대회를 진행할 행사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참가 신청서들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경쟁 부문에 참가해야 하는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의 1500개 신청서를 처리했다. 신청서는 총 1800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개 신청서는 실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수장들, 러시아 다른 지역의 대표들, 교육기관의 참가자들이며 그리고 방문객 3500명이다."라며 "시 중심에 수천 명의 방문객들을 수용할 숙소 제공이 난제"라고 덧붙였다.

시내 전 구역에는 47개 숙박시설(호텔, 기숙사,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있는데, 이중 29 곳은 경기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숙박소는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와 외국인 대표들을 비롯한 연방기관 대표자들의 방문이 예상된다. 러시아 기능올림픽 챔피언 결선대회에 10개국의 참가자들과 국제 전문가들 28명, 해외 참가자 12명이 신청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경기가 진행되는 저녁에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펼칠 예정이다. 매 저녁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관람은 무료

다. 대회 진행본부는 아직 콘서트 무대를 정하지 못했으나 주정부 앞 광장이나 레닌광장을 검토 중에 있다.

### Организаторы рассказали о подготовке к финалу чемпионата WorldSkills Russia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ктивно готовятся к финал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городе с 8 по 12 августа. Сейчас идет застройка площадки для соревнований, а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рабатывают заявки - ожидается,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о время этого события посетят 3,5 тысячи гостей, не считая участников и экспертов, сообщ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дирекции по подготовке финал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WorldSkills Russia Наталья Бачиу.

- Мы оформляем город к чемпионату, достраиваем площадки, где это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и работаем с заявками. Сейчас мы уже обработали около 1,5 тысяч заявок участников и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приехать на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ую часть. Всего ожидаем их около 1800. Еще 200 заявок попадают под деловую программу - это спике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выступающие от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и конечно 3,5 тысячи гостей - рассказала Бачиу.

По ее словам, одной из самых сложных задач было расселит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всему городу находятся 47 точек проживания - гостиницы, общежития, хостелы и гостевые дома. 29 из них отведут для конкурсантов и экспертов, в остальных разместятся гости.

Ожидается также визи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из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иностранцев. В финале WorldSkills Russia заявлены 10 стран-участниц, 28 международных экспертов и 12 конкурсантов из зарубежья. Помимо этого, в дни чемпионата каждый вечер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ход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будет бесплатным. Пока организаторы еще не выбрали место для вечерних концертов - он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лощадь Ленина и площадку перед дом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 사할린 청소년들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사할린 청소년들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사할린주 8개 사회재활센터의 학생들 10명은 1주일 동안 많은 긍정적인 추억을 쌓게 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사할린주 사회복지부와 <일본-유라시아 국가들> 사회단체 그리고 2011년3월 재난을 당한 청소년재활 조직위원회 간에 청소년 교류 각서체결의 일환으로 사할린의 청소년들을 위해 홋카이도에서 보내는 방학이 조성되었다.

7일간 사할린 청소년들에게 샷포로 견학이 이뤄져 불교 사원, 라디오 스튜디오, 동물원, 해양박물관, 수영장, 대학교 등을 견학했다.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은 방문객들을 위해 일본 서예와 종이접기 체험학습교실을 진행했다. '니키 산장'으로 가는 길에 여행단은 오타루시에 있는 초콜렛 공장에도 가보고 인근 돌고래 생태 체험관을 방문하며, 피자를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고, 맘껏 도시 인근도 산책하며, 체리농장에서 체리 수확 체험을 했다. 홋카이도 견학은 관례대로 사할린 청소년들을 위해 주일 러시아총영사관에서 재즈 피아니스트인 코노 야수히로의 콘서트로 마무리되었다.

### Сахалинские дети вернулись из поездки в Японию

Сахалинские дети вернулись из поездки в Японию. За неделю 10 воспитанников восьми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массу положительных впечатлений.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каникулы на Хоккайдо юным островитянам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рамках меморандума о молодежных обменах, заключенного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ом «Япония – страны Евразии» и оргкомитетом по реабилитации детей, пострадавших во время мартовского бедствия 2011 года.

(8면에 계속)

### 사할린 동포 학생 60명, 안산 조부모와 만나러 한국으로 떠나

지난 17일 사할린 한인 학생 60명이 <2018 재외동포 학생 초청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한국으로 떠났다. 경기도학생교육원(원장 이동섭)이 주관하는 이 연수프로그램의 목적은 경기도 학생들과 재외동포 학생들 간의 교육 활동 교류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 한국 내 거주 가족과 재외동포 학생들이 제공된 만남의 기회를 통한 가족에 실현, 한국문화체험을 통한 해외동포 학생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자긍심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전해졌다.

프로그램에 사할린 측에서는 총 67명(학생, 인솔교사 포함), 중국 동북3성 조선족 학생들과 인솔교사 총 45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한국에서 풍성한 일정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어드벤처, 아쿠아리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경복궁을 찾아 한복체험을 하고, '점프'공연도 관람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행사 중에는 혁신학교로 알려진 보평 초등학교와 중학교 방문이 있다. 이 학교들을 방문해 수업 참관과 특별활동 및 학교 학생들과 함께 급식체험도 해볼 예정이라고 주최 측이 알렸다. 19일(목) 오후에는 한국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수원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 대연회장에서 <가족과 만남의 날>행사가 펼쳐진다.

사할린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안산 고향 마을에 거주하는 조부모·중조부모와, 중국 학생들은 한국에 취업으로 나와 있는 부모와 만남을 갖는다.

프로그램은 환영사, 격려사와 한국 학생과 동포 학생들의 공연, 별도의 이벤트 등으로 진행된다.

사할린 측에서 학생방문단 모집과 사전 준비로는 사할린한국교육원의 위탁으로 사할린주한인회(회장 박순옥)가 맡았다. 이번엔 마카로브,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모집된 학생들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솔교사로는 아니와 한인회 부회장 배영희, 코르사코브한인회 한글학교 담당 박찬순, 코르사코브 한국어교사 오준순, 돌린스크 한인회장 윤태옥,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교사 김 예브게니아, 유즈노사할린스크 라이온클럽 임원 오차순과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도 동행했다.

한국에서 4박5일 일정을 보낸 학생들은 21일(토) 귀국할 계획이다.

(배순신기자)

###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우리문화역사체험'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16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문화역사체험'을 실시했다.

사할린 한인과 그 후손들에게 모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체험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과 그 후손 4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강화도의 대표적인 유적지이자 문화유산인 전등사, 보문사 등 사찰을 둘러보고, 보문사 인근에 위치한 석모도 미네랄온천을 체험하며 모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한 사할린 어르신은 "우리나라를 더욱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던 체험이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남동구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413명이 거주하고 있다. 남동구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기초생활 유지와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문화역사체험'을 비롯한 각종 사할린 지원 프로그램 문의는 남동다문화사업소로 하면 된다.

(경인종합일보)

##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호의 계속)

### 3. 그들은 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을까?

#### (1) 1945년 8월 15일, 사할린의 풍경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이 확인되었으므로 사할린으로 간 그들은 드디어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떠 있었다. 그런 가운데 8월 21일 경 일본군은 소련으로부터 무장해제되었다. 그래도 탄광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일은 계속되고 있었고, 소련병은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던 중 남사할린에 살고 있는 조선인 전체에 생각지도 않은 비참한 일이 발생한다. 패전 직후 사할린청장관(樺太廳長官)하의 군부로부터 "조선인이 스파이 행위를 하여 전쟁이 불리했다. 고로 모든 조선인을 살해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할린 각지의 탄광에 있는 조선인회관이나 조선인료에 폭탄을 투하해 모두 죽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건에 관하여 당시 오오즈 토시오(大津敏夫) 장관은 "조선인들이 전쟁에 협력했는데 살해는 허락될 수 없다"고 하여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 끝이 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실관계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사할린에서는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현 레오니도브(上敷香; 일제시대 카미시스카)에서 조선인 6명이 일본인에 의해 살해된 건, 현 레오니도브(舊上敷香) 조선인 18명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유치장에서 총살되고, 그 증거인멸을 위하여 유치장도 태워버렸다는 건, 조선인이 소련의 산림감시병에 총살된 건, 그에 대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비판하여 자살하는 건들이 수없이 많았다. 심지어 밀항을 결심하여, 1945년 10월, 북해도의 가까운 항구인 현 코샤코프(舊大泊)로 이동하기도 하였으나, 소련경비대의 감시가 엄하여 이들은 밀항을 포기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귀국허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나이부치(內淵; 현 브이코프)의 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항만하역, 소방수, 민정청관할의 조선인거류민회의 직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패전 직후 조선인의 귀환은 순조롭지 않았으며, 이들은 고국으로 귀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할 상황적 여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책무에 관한 인식조차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징용으로 갔던 사람들의 조국으로의 귀환은 그들의 몫이 되어 통환의 세월을 기다리던가 아니면 직접 일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 (2) 일본정부의 '인양(引揚)에 관한 미소잠정협정'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할린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1946년 11월 7일, '인양(引揚)에 관한 미소잠정협정'을 체결하여 귀환시켰으며, 이들의 최종 귀환은 1949년 7월 23일 하코다테(函館) 입항으로 끝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일본인을 먼저 귀환시키고 그 이후에라도 조선인들을 귀환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그런 조치는 없었다. 그 이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1956년 10월 19일, '일소공동선언'으로 일본인 처를 둔 한국·조선인도 일본으로의 귀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박노학(조선에 부인이 있었으나, 결국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그 곳에서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 당시 이러한 경우는 제법 많았다)도 귀환하기 위하여 소련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던 중 1957년 여름, 사할린에서 조선어로 '무국적자에게 출국허가를 부여한다'라는 공문서가 붙자, 한국·조선인 수백명이 오비루에 모이자 이에 놀란 오비루측은 광고문을 철수하고, 출국허가 신청 접수를 중지하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조선인들은 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박노학에게는 1957년 12월, 출국허가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1958년 1월 5일, 영하 25-30도에, 새벽 4-5시 사이에 그가 출국하려는 현 호르무스크(舊豊原)항에 돌아가지 못하는 나머지 한인·조선인들이 마중을 나와 '돌아가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라는 부탁들을 잊지 않았다. 또한 그 배가 도중에 호르무스크(豊原; 일제시대 코코하라)에 들렀을 때에는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부탁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배에서 검열을 하던 중 일본여권을 위조하여 승선한 한국인이 하선당하는 일 등도 보았다. 그래서 박노학은 그

가 일본에 돌아가면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그 배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다. 그리고 그 배는 교토-마이즈루(京都·舞鶴)에 입항했다. 그 당시 마이즈루에서 도쿄(東京)로 가는 도중 도시락도 차별하여 그들이 비록 일본인 처의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조선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東京都 아다치구(足立區)의 引揚者 기숙사에 안착하게 된다.

#### (3) 박노학 일행과 「사할린 억류 귀환 한국인회(華太抑留歸還韓國人會)」출발

이상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박노학과 그 일행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1958년 1월 20일, 귀환하는 배 안에서 서명을 받았던 진정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동경의 한국 대표부를 만나 사할린의 잔류한국인의 귀환희망을 탄원하였다. 그 당시 최규하 참사관은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우며, 국제정치에 의뢰할 수가 없어...."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그들은 일본정부·국회·적십자사·소련정부 등에 청원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1959년 2월, 박노학과 사할린으로부터 귀환한 한국인 50여명과 '사할린 억류 귀환자 동맹 본부'(華太抑留歸還者同盟本部)를 설립하고, 나중에 '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로 개칭하였으나, 이는 소련이 조선인을 억류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다시 '사할린귀환제일한국인회'로 명칭 변경하였다(이하 한국인회라 칭함). 이 회의 목적은 사할린의 잔류동포들을 귀환시키고, 생활자금 등 생활보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이 일본후생성 사무차관을 만났는데 그 답변이, "박씨는 일본인이 아니므로 인양자라는 관념은 무리"라고 하거나, 일본의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은 패전국이며, 당신들은 전승국이므로 소련정부와 직접 교섭하세요"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던 중 세월이 흘러 한일양국의 국교 수립을 다시 하려고 한일회담이 준비되고 있을 즈음 박노학 등 한국인회는 1965년 초 그 해 6월에 개최되는 한일회담에 사할린잔류한국인의 귀환에 대하여 다루어 줄 것을 한일양국에 계속해서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은 '사할린(華太; 카라후토) 문제를 의제로 삼으면 한일조약 체결이 늦어지므로 나중에 합시다'라고 대답을 하고, 또한 일본 외무성의 북동아시아와는 '이번의 일한회담에서 한국정부는 청구권을 포기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사할린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부 해결하였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마 일본 정부는 양국 간에 정식으로 협상대상으로 하지도 않은 채, 이 사안을 "전부 해결하였다"라고 하는 한편, "귀환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면-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일본정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게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됨-, 소련 정부에 교섭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나, 일본을 경유하여 귀환하고 싶다면, 협력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일회담에서는 한국 정부는 이 협상을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이러한 문제를 제외시켰고, 일본 정부로서는 이런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채, '모두 해결하였다'라는 범주에 사할린잔류 한국·조선인 문제가 포함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에 미루어 그 당시 사할린 주재 조선인들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다시 동토의 땅에서 긴 세월을 견디어내야만 했다. 그러나 박노학의 이러한 작은 귀환운동은 1978년 일본의 정부예산으로 사할린 조선인 문제의 예산이 조사비명목으로 227만엔이 책정되었으며, 재회지원비 등을 합산하여 1988년에는 834만엔 등이 책정되었으나, 1988년 말에는 일본 국회의원 등(하라의원; 原議員)이 앞서서 가족재회비용으로 500만엔을 책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등이 후일에 영주귀국을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영주귀국의 이야기는 지면 관계상 여섯 번째의 주제로 남겨두어야 하겠다.

(다음호에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осле фотосессии. Почему не получается начать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Заслоненный подготовкой к саммиту Трампа и Путина прошел визит госсекретаря США Майка Помпео в Пхеньян – визит, на котором, как изначально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американская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ы обсудят конкретные шаг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на достижение того самого «ядер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о котором стороны, как почему-то полагается считать, договорились в Сингапуре. Визит Помпео должен был стать первой после саммит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по прак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Результаты эти оказались более чем разочаровывающими. Майк Помпео, вер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трамповской школы дипломатии, отчаянно пытается делать хорошую мину при плохой игре и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дескать, «достигнут прогресс». Однако поведение Пхеньяна заставляет сильно усомниться в том, что данное обтекаемо-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заявление отражает реальную ситуацию.

### Недовольный Пхеньян

Как только самолет госсекретаря покинул Пхенья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явили, что считают американскую переговорную позицию «вызывающей сожаление». Впрочем, в Пхеньяне, известном своей склонностью к, скажем так, неортодоксальн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риторике, вскоре уточнили свое отношение к произошедшему и заявили, что Помпео, настаивавший на медленном и полном ядерном разоружении КНДР, во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ов «вел себя как гангстер». Иначе говоря, Помпео провозгласил н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любезностями, и даже не вежливым холодным молчанием, а типичной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руганью.

Ничего удивительного в этом нет. О том, что шансов на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чень немного, вменяемые эксперты говорили и раньше. Впрочем, события последнего года и дипломатия шантажа, мастером которой неожиданно показал себя Дональд Трамп, привели к тому, что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у многих возникли надежды на то, что какие-то осмысленные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все-таки будут достигнуты. В таких соглашениях речь, конечно, не шла бы о то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даст ядерное оружие, –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полне обоснованно) считает такой шаг самоубийственным. Однако ожидалось, что на какие-то серьезные уступки северокорейцы пойдут и согласятся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на замораживание своих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 а при определенном везении – и на их сокращение. Сейчас ясно, чт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и этого.

Действия, предпринят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Трампа в прошлом 2017 году, создали ситуацию, при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лялось вероятны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йдет на уступки, невысказанные еще в недалеком прошлом. Однако этот успех администрация Трампа развить не смогла. Сингапурский саммит 12 июня закончился непонятно-туманной декларацией и в итоге превратился в очередную фотосессию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о его завершении президент, как и следовало ожидать, сообщил в твитах своим убежденным сторонникам о том, что американскому народу, дескать, «не нужно больше беспокоиться по повод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угрозы», ибо эта угроза его, Трампа, усилиями полностью ликвидирована. Подобные заявления

никак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реальности не имеют: сингапурский саммит не только не привел к каким-либо конкретным соглашениям о сокращ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но даже не увенчался его замораживанием.

### Недовольный Китай

Однако главные проблемы для США сейчас создаются не расплывчатостью сингапур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а ухудшением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ерный своим предвыборным обещаниям, Дональд Трамп резко повысил ввозные пошлины на ряд китайских товаров, нача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лномасштабную торговую войну с Китаем. Ес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чист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контрсанкции, Китаю трудно дать адекватный ответ на американское тарифное наступление. Поэтому Пекин, скорее всего, ответит асимметрично, нанеся ответный удар не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 и торговли, а в какой-то иной сфере – например, в сфере вопрос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узел создает наи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такого асимметричного ответа.

Китай – это одна из пяти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нных ядерных держав, и в качестве таковой она крайне 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 планете, так что ядерные усилия Пхеньяна понимания в Пекине никогда не встречали. Тем не менее, в Китае всегда считали, чт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угрозы Пекин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яд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 и с ней в принципе Пекину можно смириться.

Однако, с лета 2017 года ситуация ненадолго изменилась: Китай стал действовать заодно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создав практически единый фронт с СШ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Китайские дипломаты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жесткий режим санкций в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и, что еще важнее, китайские таможенники, следуя указаниям Пекина,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 новый режим санкций в жизнь с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суровостью.

Однако в новой ситуации эта суровость, кажется, быстро уходит в прошлое. Сейчас, когд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Трампа развязала против Китая торговую войну, для Пекина имеет смысл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американцам их, американцев, уязвимость и их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доброй воли Китая в иных вопросах. Учитывая степень раскручен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ядерного вопрос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идеальным плацдармом для нанесения подобного ответного удара.

Поэтому не следует удивляться тому,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полтора китайские таможенники стали смотреть сквозь пальцы на те торговые сделк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которые отчасти нарушают санкционный режим. Понятно, что стоит только руководству КНР приня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пусть и негласное, – и весь режим санкций станет бесполезным. Китай контролирует около 85–90% всей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КНДР, и, если в Пекине решат игнорировать или даже осторожно поощрять нарушение санкций кита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вся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станет бессмысленной – что бы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ни думали сейчас в Вашингтоне. Однако именно такое изменение позиции Пекина и происходит сейчас,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Фактически Китай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единого фронта с США и возвращается к той политике, которую он проводил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уже почти два десятилетия.

### Не может повторить

Есть у происходящего и иное измерение.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успеха американ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которой удалось посадить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и сделать это фактически бесплатно, что само по себе является немалым достижением!), было то,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Трампа убедитель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свою готовность применить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илу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Пхеньян не пойдет на уступки.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все те воинственные заявления, равно как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утечки из Белого дома и Пентагона, которые мы наблюдали в 2017 году, являлись блефом. Однако закрепившаяся за Трампом репутация отвязного или, как говорят в определенных кругах, «отморозенного» человека привела к тому, что его заявления – даже если они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являлись блефом – воспринимались всерьез. Сейчас на повторение этого эффекта рассчитывать не приходится.

Пыл американских ястребов может охладить и 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что в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Китай вполне способен заявить о том, что верный духу кита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договора о дружбе 1961 года, окажет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оенное содействие, если она станет жертвой нападения третьей страны (то есть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Разумеется, речь не идет об отправке китайских войск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корее всего, даже при самом драмат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событий, Китай ограничится отправкой вооружений и передаче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данных. Однако даже такие частичные меры – и, более того, даже сама вероятность принятия Китаем этих мер – являются весьма весомым фактором, который, как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существенно охладит самые горячие головы в Вашингтоне.

Наконец, немалую роль играет и позиция руковод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постоянно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у него, дескать,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в искренности Ким Чен Ына и готов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отказ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омнительно, что такой тертый и многоопытный политик, как Мун Чжэ И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ерит в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ро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безъядерного парадиза. Однак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оставляет ему мало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выбора: если Мун Чжэ Ин признает очевидное – невозможность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то этим он не только сыграет на руку своим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м оппонентам, ястребам из правого лагеря, но и увеличит шансы на то, что США вернутся к политике давления и военных угроз.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южн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скорее всего,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будет отрицать очевидное, настаивать, что полное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дело ближайшего будущего, и всячески саботировать возвращение США к политике «максим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ернуться в 2017 год не удастся. В создавшихся условиях новая волна угроз и многозначительных заявлений о «гневе и пламени», которые вот-вот обрушатся на непокорный Пхеньян, будет проигнорирована. Здесь Трамп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скорее всего, обнаружат себя в положении, напоминающем героя известной сказки, мальчика-пастуха, который любил кричать о появившемся волке. Первый раз его крикам поверили все, однако во второй или третий раз крикам этим будет веры куда меньше.

Вся эта ситуация очевидна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 не случайно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месяца Ким Чен Ын побывал в Пекине три раза. В Пхеньяне 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не собирались соглашаться на полное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но там были готовы идти на кардинальные уступки по ядерному вопросу. Однако эта готовность уступать была вызван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опасениями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силовой акции, равно как и по поводу последствий санкций, в поддержку которых неожиданно выступил Китай.

Сейчас эти опасения исчезают – и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Пхеньян меньше заботится о том, чтобы скрывать свою позицию. Позиция эт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пунктов: во-первых, полное и необратимое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для КНДР неприемлемо (хотя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соображениям этого теперь не говорят прямо); во-вторых, уступки по линии ограничения ядерного и ракет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теоретически приемлемы, но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каждая такая уступка будет немедленно и адекватно вознаграждена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ой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утем поэтапного ослабления санкций. Именно второй пункт, кажется, донесли до госсекретаря Помпео в Пхеньяне.

Судя по слухам и утечкам, Помпео вез в Пхеньян некую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конкретный план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по мнению США, должны были предпринять в Пхеньян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до истечения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срок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ликвидац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Он, скорее всего, выразил и текущую позицию США по санкциям,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ни о какой отмене санкций не может быть и речи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КНДР не ликвидирует весь свой ядерный потенциал. Поскольку полная ликвидация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планы Пхеньяна в принципе не входит, переговоры окончились ничем. Показательно, что намечавшаяся встреча Помпео и Ким Чен Ына проведена не была.

Это, конечно, не прекращение переговоров. Для Трампа будет непросто признать свою неудачу перед промежуточными выборами, так что переговоры продолжатся. Не возражают против этого и северокорейцы,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которых – переждать бурю, дожидаться того неизбежного момента, когда Трамп сдаст дела и покинет Белый дом. После этого, как справедливо полагают в Пхеньяне, можно будет вернуться к старому.

Провал американ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оторый стал очевиден уже после Сингапурского саммита, приобретает все более впечатляющие масштабы. Сейчас уже нет шансов на то, что миру удастся просто вернуться к ситуации, существовавшей на конец 2016 года, то есть на момент избрания Трампа президентом. Ситуация, скорее всего, в итоге стабилизируется – речи о войн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 целому ряду причин как не было, так и нет. Тем не менее, новая ситуация, которая, скорее всего, сложитс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сле ухода Трампа, будет куда более опасной и для мира в целом, и дл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чем та ситуация, которая существовала в момент прихода Трампа к власти.

(Источник: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рнеги)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РК отметили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17 июля в РК отметили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В з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70-ой годовщины принятия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страны.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уководител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в том числе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Мун Хи Сан,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Ли Нак Ён, председатель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Ким Мён Су и другие.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речи Мун Хи Сан заявил, что возвращение доверия народа заключается в полном следовании Конституции. Он также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с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е в качестве спик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 концу года подготовить план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одобренный правящими и оппозиционными силами. Мун Хи Са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особую важность парламента в деле создания си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ботает над поддержкой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правя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расширении поддержки людей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17 июля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было решено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программу выплаты пособий малоимущим работающим людям в виде возврата налогов.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увеличение таких выпла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величением объёма работы. В сентябре надбавка к базовой пенсии будет увеличена с 200 до 250 тыс. вон, составив 222 долларов. Для малоимущих, начиная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адбавка вырастет до 266 долларов. Принимаются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оздания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Молодым людям, только начинающим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жизнь,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месяцев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ся пособие в размере 450 долларов,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их в поиске качестве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Как сообщил вице-премьер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ки Ким Дон Ё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средоточится на увелич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рабочих мест и обеспечении стабильной социальной системы. Лидер фракци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Хон Ён Пхё заявил, что нужно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одготовить меры обеспечения стабильного дохода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Он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оппозицией в принятии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насущ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общества и экономики.

## ВВС и ВМС РК отработали спас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на море

17 июля ВВС РК провели учения по отработке спасательных операций на случай стихийного бедствия. В манёврах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самолёты C-130 и CN-235, а также спасательные вертолёты, корабли, скоростные катера, привлекались глубоководные водолазы. Первыми на место предполагаемого бедствия прибыли скоростные катера. Они оценили ситуацию, обеспечив подготовку к спасательным работам. Затем самолёты сбросили спецоборудование. Далее подключились другие спасатели. В общем, было отработа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сех профильных служб, подразделений и средств.

## Восстановлена связь между военными Юга и Севера на западном участке границы

Каналы связи между военными Юга и Севера на западном участке границы были полностью восстановле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Двусторонняя связь в этом районе была отключен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11 февраля 2016 года перестал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Кэсонски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Если ранее через границу были проложены только медные кабели, то на этот раз проложен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ий кабель, что обеспечило не только телефонную, но и факсимильную связь. 14 и 25 июня стороны провели рабоч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После этого Северу были переданы оборудование связи и факсимильные аппараты. Их передача была обговорена с США и Совет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 20 июля в Сеуле стартует «Летний фестиваль Ханган Монттан-2018»

20 июля стартует шестой по счёту «Летний фестиваль Ханган Монттан-2018»,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 Сеульская мэрия. Он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В его рамках в 11 парках вдоль реки Ханган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около 80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Жители и гости столицы смогут в водных играх отвлечься от духоты, царящей в Сеуле. Вечером там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различ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том числе концерты, показы кино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Более 70% программ будут бесплатными.

(RKI)

## Китай и Южная Корея развернули борьбу за "будущую КНДР"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еще никто не отменял, но ряд стран уже проявляет самый активный интерес к возобновлению проектов в КНДР.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собую активность стали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Китай и Южная Корея, где с соображениями будущ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выгоды тесно переплетены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планы. Сеул и Пекин уже выработали планы активного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утем разного рода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и прочих проект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ремясь гарантировать, чтобы Пхеньян выбрал тот путь развития, который выгоден каждой из стран. Интересы Китая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зачастую не совпадают, что в перспективе выльется в активную конкуренцию на пространствах КНДР.

Сам же Пхеньян, судя по подходу, намерен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и противоречия,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максимум выгоды для себя.

Стартовавшее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сближение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постепенно приобретает все более конкретные формы. Стороны ведут активные переговоры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 этом привлекали межкорейск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сфер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и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по дан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едставили Сеула и Пхеньяна подписали еще в конце июня в Пханмунчжоме.

Так, Юг и Север в сфере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решили, что с 24 июля проведут изучение состоян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между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анцией Мунсан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городом Кэсон (т.н. "западная линия" или линия Кёнысон), а затем между станциями Чечжин (Южная Корея) и Кымгансан (КНДР) (т.н. "восточная линия" или линия Тонхэсон, которая идет вдоль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 итогам работы будут подготовлены детальные рекомендации и технические план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еобходимых систем управления и контроля,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лотна и прочее. Также решено, что после этого стороны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начнут работы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участков. Если говорить прямо, то речь идет только 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полотне, так ка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га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поддерживаются в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Кроме тог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также согласилась допусти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и провести вместе изучение состояния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й, как западной, так и восточной, ветк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КНДР, а именно, участка от Кэсона до Синийчжу (всего 411 километров), а также от станций Кымгансан до Туманган. Чтобы понять, что это значит, надо представлять карту КНДР. Кэсон находится рядом с границей с Южной Кореей, тогда как Синийчжу - это уже граница КНДР с Китаем. То есть, эта ветка (западная или Кёнысон) идет от ДМЗ через Пхеньян и выходит на Китай. А вторая (восточная или Тонхэсон) идет от ДМЗ на восток, проходит по всему восточному побережью КНДР и выходит уже на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Пхеньян согласился дать доступ южанам к крайне важн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Юг сможет выяснить точ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пропуск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как западного (на Китай), так и восточного (на Россию) направления. А в КНДР именно на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приходится около 90 процентов грузовых и военных перевозок и более 60 процентов пассажирских. Доступ к информации 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КНДР позволит просчитать в том числе и то, как в случае войны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могут обеспечивать переброску войск, подвоз подкреплений, материалов и прочег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это, Пхеньян дал согласие.

В сфере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было решено, что Юг и Север проведут изучение состояния и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дготовку для начала модернизации автомагистралей на двух участках: от Кэсона до

Пхеньяна (западная линия или Кёнысон), а также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осона д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рупного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Вонсан (восточная линия или Тонхэсон). Работы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состояния стартуют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с линии Кёнысон, а потом перейдут на восточный участок. В результате мы видим, что Юг и Север имеют очень большие планы, которые означают намерение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железнодорожную и автомобильную сеть КНДР.

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этих же сферах очень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т и с Китаем.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19-20 июня в третий раз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посетил КНР и встретился с лидером Китая Си Цзиньпinem. Затем в начале июля в Пекине побывала официальн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зам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ки Ку Бон Тхэ.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замминистра отправился в Пекин согласовывать уже конкретные детали т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 котором Си и Ким договорились в ходе саммита 19-20 июня.

О чем был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фициально не сообщил ни Пекин, ни Пхеньян, отделавшись общими фразами. Однако японские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свои источники заявили, что лидер Китая предложил, чтобы китайские компании модернизировали или даже построили совсем новую линию скоростной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по маршруту Синийчжу - Пхеньян-Кэсон. Учитывая, что прямо через реку от Синийчжу находится китайский город Дандун, то это означает со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трассы, соединяющей КНР и КНДР. Кроме того, Си проявил интерес к развитию четырех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КНДР - в районе Пхеньяна, в районе порта КНДР Вонсан и двух приграничных - Синийчжу (западный участок границы КНР-КНДР) и Рачжин (восточный участок границы КНР-КНДР, где также находится и граница КНДР с Россией).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еул-Пекин-Пхеньян)

##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 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реклама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Сахалин поступае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область прибыли комплекты для компетенции мобильной робототехники. В них вошли ноутбуки, моноблоки и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торы с комплектующими голланд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для старших участников и юниоров.

- Да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сле чемпионата останется в области и будет большим подспорьем в обучении будущих инженеров и в подготов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мобильной робототехники и мехатронике, - рассказала Лидия Даниленко, проректор п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РОСО). - По оценке наших технических экспертов, оно обладает качественными чувствительными датчиками с минимальной погрешностью. Приобрести их за свои средства ни одн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региона не смогло бы.

Чемпионат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можно назвать стартовой площадкой улучшени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любог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принимающего у себя конкурсантов. На новом и современн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ребята получают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вои инженерно-технические навыки.

Специалисты ИРОСО приступили к изучению техническ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поступивше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амым сложным для юных инженеров, отмечают они, будет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е собранной конструкции на выполнение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Напомним, чемпионат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пройд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8 по 12 августа. Ожидается, что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мут 3,5 тысячи студент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выбрали для себя рабочие профессии. Они буду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навыки в 62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мпетенциях.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обороться за президентские гранты

Начался второй в этом году конкурс сред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гранто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ем заявок продлится до 10 сентября.

Фонд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проводит конкурсный отбор по следующ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циа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охрана здоровья; поддержка семьи, материнства, отцовства и детства; наука;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поддержка молодых талантов; защита прав и свобод человека;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гласия; развитие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бщий объем грантовой поддержк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2018 году составит около 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эти средства реализуются тысяч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Пять сахалински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уже выиграли президентские гранты в первом конкурсе этого года и получили более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Центру помощи людя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грантовая поддержка поможет создать 3D-библиотеку для людей с нарушениями зрения. Центр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будет помогать детям-инвалидам выбрать профессию. Клуб «Бумеранг» откроет на Сахалине школу парусных путешествий для молодежи. «Клуб молодежных идей» потратит грант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веловыездов для южно-куриль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одная земля»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краеведческие приключенческие игры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 молодежи, а также походы выходного дня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ддержка социальны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и научных проектов, содействи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и и добровольчеству.

Подробнее с порядком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и требованиями к участникам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президентскиегранты.рф. Кроме того, информацию о конкурс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7 (495) 150-42-22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office@pgrants.ru. А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есурсном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 телефону: 8(4242) 424-230 (Коржова Ири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 вторая молодость» дарит сахалинским пенсионерам здоровье и долголетие

За два года к регулярным тренировкам, активн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приобщилось около двухсот пожилых людей. Во время открытых занятий в волейбольном центре «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в физ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е.

По словам заместителя куратора проекта Эльвиры Юрковой, зан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под контролем опытных тренеров. Пенсионеры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ют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играют в настольный теннис, за-

нимаются гимнастикой, танцами и даже поют в хоре. Также для них организуют различные досуг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ребряного» возраста признаются, что регулярные тренировки – залог активного долголетия. Лидия Владимировна Мартынова - одна из самых опытных участниц проекта. Женщине 81 год, и он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сещает спортзал.

- Хожу на тренировк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роекта, - говорит Лидия Владимировна. - Занятия позволяют улучшить общее состояние организма. Гимнастика помогает укрепить мышцы и суставы, после упражнений чувствуешь себя моложе. Здесь всегда душевно и весело,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мы оздоравливаемся и продлеваем жизнь.

Юрию Аркадьевичу Просёлкову тоже скоро исполнится 81 год. Он, как и Лидия Владимировна, полон сил и энергии.

- Мне очень нравятся тренировки, лучшего в моем возрасте и не придумаешь, - отметил Юрий Аркадьевич. - На пенсию я ушел в 78 лет и сразу же попал в эту группу. И теперь не представляю, как можно жить без тренажерного зала. Он помогает мне быть в форме. Хожу сюда, как раньше ходил на любимую работу. Если бы я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не посещал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то просто обветшал бы, как физически, так и морально. Советую всем заниматься вместе с нами.

Записаться в группу здоровья в волейбольном центре «Сахалин»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прийти за 10-15 минут до начала занятия. Тренировки проводятся по вторникам и четвергам с 12 часов.

Количество сторонников актив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среди людей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 каждым годом растет. Сегодня островные пенсионеры занимаются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ой, пересаживаются с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велосипеды, участвуют в массовых забегах.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решили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на все районы практику привлечения пенсионеров к занятиям физкультурой.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группы здоровья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в большинств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меняют новые совреме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технологии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стал первой площадко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илот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роекта –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пациентов с артериальным давление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нём участвуют 100 человек – жители Смирных и Онор.

Каждый день за их здоровьем следят терапевты при помощи специальных тонометров с GSM-модулями. Показания с приборов автоматически направляются на специальный сервер.

- Эта программа стала надежным помощником и для врача, и для пациента, - констатирует заведующая поликлиникой ГБУЗ «Смирныховская ЦРБ» Марина Куртова. - Чтобы не было осложнений, инфарктов, инсультов важно регулярно следить за артериальным давлением. И уже сейчас мы видим, что люди становятся более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ыми, вовремя принимают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для стабилизации артери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и контролируют его. А врач в любой момент может отследить динамику, на основании которой можно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леч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не просто передает данные, но и следит, чтобы человек измерял давление вовремя. Если этого не произошло в определенный период, то обладатель тонометра на телефон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оступает звонок с напоминанием.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за состоянием здоровья 100 пациентов дистанционно наблюдают всего два терапевта, которых теперь вполне достаточно с учето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 Этим аппаратом пользуюсь два месяца. Давление надо обязательно мерить утром с 8 до 12 часов и вечером с 20 до 24. Компьютерный контроль за моим состоянием ведет лечащий врач и сотрудник центра - во сколько какое давление было. Если повышенное, то идет звонок, и сразу уточняют про прием таблеток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чуть позже перемерить давление, - делится опытом житель села Смирных Андрей Ростовцев.

Это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ая система работает уже в нескольк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Сервер, на который поступают данные, находится в Москве. У врача поликлиники в компьют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есть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где отображаются данные подконтрольных ему пациентов.

Аналогичную систему работы уже начинают внедрять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постепенно в проект войдут и други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о один из этапов системной работы по снижению смертности от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заболеван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лагодаря комплексным мерам, в том числе мониторингу, экстренной маршрутизации больных, увеличению объема оперативных вмешательств, в области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снижения смертности от этих заболеваний на 46%.

## Министер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о 8,3 млрд рубл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адрес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 2,9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 приходитс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ие цифры озвучила и. о. министр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тьяна Стаценко на совещани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Новые школы появя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мирных и Ногликах, школу – детский сад возведут в селе Кировском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 участием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остроят среднюю школу в Долинске и закончат работы по сейсмоусилению школы №7 в Поронайске.

Почти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разверну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ых домов.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ачественным жильем в адрес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е выделено 2,8 млрд рублей. По словам Татьяны Стаценк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ов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идет в срок. С начала года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проведена работа по оформлению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устроены конкурентные процедуры, заключены муниципальные контракты.

На 2018 год 1,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редусмотрен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а 2016-2025 годы». Ост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пойду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культур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ЖКХ. Так, в селах Ильинское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Некрасовка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оявятся центры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Охе построят городскую баню.

На 1 июля 2018 года освоено 15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адрес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что составляет 1,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з 8,3.

- Вс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должны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почему на некоторых объектах идет отставание. Поставьте кураторов на местах, чтобы они каждый день были на связи и давали отчет. Все объекты должны быть сданы точно в срок в текущем году, - подытожила Вера Щербина.

##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ятся 20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мплекса «Аква Сити».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центр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в конц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сле передачи объекта в обл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ему на конкурсной основе определят управляющую компанию.

Строящийся комплекс является уникальным, самым крупным объект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д одной крышей. Два спортивных бассейна и шесть ванн вод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й зоны позволят ежегодно обслуживать более 2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аквазоне и почти 300 тысяч в плавательных бассейнах.

Размеры одного бассейна 50х25 метров с 10-ю дорожками. В нем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проводи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и тренировки по скоростному плаванию и водному поло.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пециальная перегородка разделит большой бассейн на два 25-метровых. Второй тренировочный бассейн в два раза меньше первого - 25х25 метров. Он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повседневных тренировок юных пловцов, спортсменов с проблемами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и занятий аквааэробикой. Также в определенные часы в нем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любительским плаванием все желающи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озраста, физ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и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В здании комплекса предусмотрены залы силовой подготовки и «сухого» плавания, спортивный зал с раздевалками, санузлами, кабинетами врачебного осмотра и консультаций для занятий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од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зона будет способна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нять до 900 посетителей. В неё входят водный «городок» для детей не старше 5 лет и комплекс для детей 5 – 12 лет. А также водные аттракционы различной высоты и сложности - «волновой бассейн», бассейн «медленная река», турецкие и римские бани, зона отдыха с лежаками и ваннами-джакузи. После водных развлечений и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гости центра смогут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в кафе и барах, расположенных по всему комплексу и рассчитанных на 20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В комплексе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и обеспече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сетителей с учетом всех действующих норм и правил, соблюдением функциональных требований и согласно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му регламенту. Предусмотрена автомобильная парковка на 800 мест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Системы вентиляции и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обеспечат посетителей чистым воздухом и комфортной температурой. В системах водоочистки и водоподготовки бассейнов используются только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лучшее европей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что гарантирует самое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воды.

«Аква Сити» будет стартов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запуска нового массового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обучению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лаванию. Посещать комплекс смогут ежедневно до 500-600 ребя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близлежащих районов. Занятия для них будут бесплатными. Новый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станет логичным продолжением уже действующих - «коньки в школу», «лыжи в школу» и «хоккей в школ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공동 보도자료]

###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2018. 8. 16.~ 17.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 주제 중 하나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선정하였습니다.  
 3. 일본 내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현재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은 2010년 시행된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교육보조금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교육권 침해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구촌 동포연대,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3개 시민단체는 2018. 7. 16.(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4. 연대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의 불인정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 배제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등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더불어 연대보고서를 통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으로 인정할 것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를 포함하고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조치를 할 것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에 조선유치원 아동들을 포함할 것 ▲수학여행 기념품 압수 관행을 시정할 것 등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이번 연대보고서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첫 시민단체 연대보고서입니다. 한국시민단체가 일본 심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이미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

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의 침해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시민단체의 연대보고서에 적시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고를 선언하기를 기대합니다.

- 첨부자료 : 대한민국 인권시민사회단체 (43개 단체) 보고서

2018.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어린이어깨동무,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영화영상제작자협회, 하연화무용단, 심재민 어학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미국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호주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일본 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독일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인도네시아폴리스, 미국, 수원시민신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파이브, 남구평화복지연대, 학산포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여순항쟁 유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여수 순천 10.19 유족회, 평화어머니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이 지키는 시민모임, 백마 주님의 교회, 씨알평화교회, 은행정 책마당,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아이쿱생협, 춘천영상공동체 미디어공, 일과놀이,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촛불혁명출판사민위원회, 해외동포 민족문화 교육 트윙크(부산동포넷), 대안교육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리말로 깨닫다]

### 조선어라는 말

우리는 고구려 말을 고구려어라고 하고, 백제 말을 백제어라고 하고, 신라 말은 신라어라고 합니다. 물론 고려의 말은 고려어라고 하죠. 이렇게 당연히 보이지만 조선의 말은 조선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있고, 지금 북쪽에 있는 조선이 있습니다. 조선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는 한국어라는 명칭이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종종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선의 말이 조선어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북측의 말은 한국어가 아니며 고려시대의 말이나 삼국시대의 말도 한국어가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물론 북쪽을 국가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의 화해가 계속되고, 언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북한, 북한어, 한국, 한국어, 조선, 조선어, 남조선, 남조선어'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정의 및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북미, 미북, 조미' 회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북미라고 하였지만 북쪽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조미가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북쪽보다 미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미북'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였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라면 북한이라는 용어가 맞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입장에서라면 남조선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도 남쪽을 괴뢰집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측을 국가로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표현에 더욱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문적인 입장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북한이 국가라는 현실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다면 조선이라는 국명을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선에서 사용하는 말 역시 조선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한국어라는 용어의 사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조선과 교류가 있는 중국의 학자들은 한국어라는 용어가 불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말은 중국조선어라는 용어로 칭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어, 조선어, 코리아어'라는 용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리아어가 고된 끝에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아닌 명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면 코리아기를 드는 것도 명칭에 대한 고민 때문일 겁니다. 코리아가 점점 남북한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코리아라는 말이 우리말이 아니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말에서 적절한 어휘를 찾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과 관련된 학회를 보면 한말, 배달말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이 한글이니가 말은 한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한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의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남북의 언어는 이질화가 이루어졌지만 생각보다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쪽 사람이 북쪽의 방송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북쪽에서도 남쪽의 드라마를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듯합니다. 어찌 보면 경상도나 전라도 방언보다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두 개의 언어라기보다는 방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질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인식이 이루어지면 소통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조금 더 널리 소통한다면 한국어나 조선어나에 대한 명칭의 고민도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한동안 논의하기조차 결끄러웠던 문제를 이렇게 지면에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점만 해도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글로벌 세대의 모국으로의 특별한 여행이 시작된다"

####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 연수 개최

24일부터 7일간 50개국 1천여 명 서울과 천안, 파주, 군산, 부산 오가며 모국 체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오는 24일(화)부터 31일(화)까지 7박 8일간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차세대들을 초청해 모국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연수(이하 모국연수)에는 내년도 3.1 만세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1천여 명의 재외동포 중고생과 대학생이 참가한다.

동 연수는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국내외 차세대 간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최근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을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동 연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한반도 하나로 잇기'를 주제로 열리며, 중고생은 서울과 천안을 기점으로 파주, 군산,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 대학생은 서울, 부산, 경주 등에서 모국을 체험한다.

25일(수)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이 열리고, 1천여 명의 참가자와 국내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함께 자주독립의 합성을 재

연하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후 참가자들은 지역별로 나눠 팜스테이, 일일학생체험, 농어촌체험, 전통음식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모국을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

특히, 파주지역 체험 참가자 100여 명은 25일(수)부터 이틀간 파주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하고, DMZ에서 거주국 언어로 평화선언문을 낭독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다.

또한, 29일(일)에는 내년 3.1운동의 10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서울 탑골공원과 인사동거리에서 3.1 만세운동을 재연하는 평화 퍼포먼스와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미래 재외동포 사회의 주역이 될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모국을 방문하고 직접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한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재외동포 중고생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모국연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교류하며 모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미국서 첫 한인 이름 딴 '김영옥 대령 고속도로' 생겼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가 생겼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연방고속도로 5번(Interstate freeway 5) 일부 구간을 '김영옥 대령 기념 고속도로'로 명명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 최석호 의원과 새턴 귀크-실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상원의원 40명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회부돼 34명의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미국은 최근 평택에 들어선 새 유엔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본청 작전회의실을 '김영옥 회의실'로 명명했다.

이와 별도로 주한미군사령부는 건물 하나를 '김영옥 빌딩'으로 명명하기로 했으며, 이달 14일 헌정식을 갖는다.

\* 김영옥 대령(1919~2005)은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나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불패신화를 이룬 전설적 전쟁영웅이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아, 입양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인권운동가이다.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 미국 정부로부터는 특별무공훈장, 은성무공훈장(2개), 동성무공훈장(2개) 등을 수여받았다.

(재외동포재단)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За семь дней сахалинцам организовали экскурсии по Саппоро, показали буддийский храм, радиостудию, зоопарк, муз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бассейн и университет. В вузе студенты провели для гостей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иероглифике и технике оригами. По пути в «Горный дом Никки» группа заезжала на шоколадную фабрику в городе Отару. Там же они посетили дельфинари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готовили пиццу, вдоволь погуляли по окрестностям и собирали урожай черешни.

Завершилась поездка на Хокайдо традиционным приемом для ребят в Генеральном консульстве РФ и концертом с участием джазового пианиста Коно Ясухио.

## 사할린 찌하야만, 러시아의 5대 해안 비경으로 선정

유명 '러시아 트래블' 여행 사이트는 사할린의 찌하야만을 러시아의 5대 해안 비경에 포함시켰다. 순위 선정 작성자들의 견해로 마카로프스크 구역은 자연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제반시설과 편리함에서도 가장 엄격한 국제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해안으로 선정된 곳이 '러시아 트래블' 사이트에 올라있다.

그곳은 칼리닌그라드주의 리조트 지대, 크림반도, 크라스노다르, 프리모리, 사할린이다.

해안가에서의 조용한 휴식과 낚시, 수풀 산책을 전문가들은 러시아 섬의 보물로 보았다. "국내 다른 땅끝인 사할린을 살펴보자. 여기 마카로브 구역에는 찌하야만이 자리하고 있다. 그 이름이 장소를 말해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조용한 쉼과 낚시, 수풀과 시냇가와 바위들을 따라 산책할 수도 있다. 찌하야만에 대한 설화에 따르면 유명한 바다탐험가인 이반 쿠르젠스테른은 강풍과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이곳을 발견하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극동 지역의 해안 비경으로는 프리모리주에 있는 라주르나야만이 있다. 옛 중국어로는 '샤모라'라고 부른다. 우수 해안 비경 5위를 선정한 작성자들은 이국적이고 편안함을 갖춘 곳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곳을 꼭 방문해보길 강력 추천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조용함과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사할린만과 달리 라주르나야 부근에는 카페, 놀이공원이 있고 유명한 <오케안> 아동 캠프장은 매력적이다.

## Сахалинская бухта Тихая вошла в ТОП-5 легендарных пляжей России

Популяр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ртал RussiaTravel включил сахалинскую бухту Тихую в ТОП-5 легендарных пляжей России. Живописный уголок природы в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е, по мнению создателей рейтинга, не только располагается в красивейшем месте, но 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амым строг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по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и комфорту.

Подборку самых лучших пляжей России разместили на сайте RussiaTravel. В нее вошли курортные зоны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Крыма, Краснодар, Приморья и Сахалина. Островная жемчужина России «зацепила» экспертов спокойным отдыхом на пляже, возможностью порыбачить и побродить по зарослям.

«Перенесемся на другой конец страны — на Сахалин. Здесь, в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е, находится бухта Тихая. Ее название полностью себя оправдывает: в ней можно спокойно отдыхать на пляже, рыбачить, бродить по зарослям, ручьям и скалам. Кстати, Тихой эту бухту назвал, по преданию, знаменитый мореплаватель Иван Крузенштерн, отыскав наконец место, защищенное от ветров и тайфунов».

В числ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легендарных пляжей и бухта Лазурная в Приморье. Другое ее старое китайское название — Шамора. Авторы ТОПа советуют обязательно ее посетить тем, кто мечтает о сочетании экзотики и комфорта. В отличие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бухты, где туристы могут довольствоваться полной тишиной и спокойствием,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Лазурной располагаются каф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аттракционы и известный детский лагерь «Океан».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전수문님께 드리는 축하문

팔순을 맞이하신 전수문 선생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기간 사할린주한 이산가족협회 사업에 열심히 활약하신 데 대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즐기시며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하고 손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 전 <사할린그라드단프로젝트>설계연구소

총건축가 전수문님께 드리는 축하문

사할린주의 발전과 사할린동포사회에 큰 기여를 해오신 전수문님께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장기간 새고려신문을 몰심양면으로 뒷받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택에 행운과 부유함과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녀

손자녀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реклама

bilet.sakh.com

#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